

“기술의 사회적 가치 널리 알리겠습니다”

안유성 명장, 기능경기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서 “9월 광주 성공 개최” 다짐
51개 직종 1천725명 선수 기량 겨뤄
“젊은층 기술에 자부심 갖도록 일조”

숙련기술인의 대추제인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홍보대사에 안유성 명장이 위촉됐다.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는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안유성 대한민국 명장을 위촉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인들이 그간 준비한 기량을 겨루는 국내 최고의 기술 경연대회이자 숙련기술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는 숙련기술인의 대추제이다.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는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숙련기술인 안유성 대한민국명장을 제60회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



광주시기능경기위원회는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안유성 대한민국 명장을 위촉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해 전 국민들에게 대회를 알리고, 참가선수들을 응원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유성 명장은 2023년 대한민국명장 조리 분야 요리 직종에 선정됐고, 최근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 요리의 품격과 조리 기술의 깊이를 선보이며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안 명장은 위촉식에서 “숙련기술인에게 꿈의

무대인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통해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며 “젊은 세대가 기술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옥균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대사를 맡아주시는 안유성 명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

능경기대회가 젊은 기능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축제가 되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오는 9월20~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산업용 로봇, 폴리메카닉스 등 51개 직종에서 1천725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룬다. /안태호 기자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취약계층 지원 성금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 열매)는 31일 “한국마사회 광주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8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마사회 광주지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장영완 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지사협), 계림1동 지사협 관계자, 광주 사랑의열매 직원 등 8명이 참석했다. 기탁된 성금 중 500만원은 동구 지사협이 쪽방촌 거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치과진료

상생 희망브릿지’ 사업에, 나머지 300만원은 계림1동 지사협이 운영하는 어르신 한글배움터에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장영완 지사장은 “마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광주지사는 지난 2003년부터 광주 사랑의열매를 통해 현금 7억7천여만원, 현물 약 1억3천500만원을 기부하며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주성학 기자



송원대, ‘일본의 소리풍경 발굴’ 출판 기념 학술세미나

송원대학교는 “최근 대학 강의C동 로비에서 ‘일본의 소리풍경 발굴 사업’이라는 책의 출판 기념 학술세미나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의 소리풍경 명소를 찾기 위해 시작된 학술세미나는 한영호 전남대 학술연구 교수, 박현구 송원대 교수, 김향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박사가 일본의 소리풍경(soundscape) 사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한 성과물 공유로 마련됐다. 소리풍경은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청각적 요

소, 소리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사상이자 이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만 파악해 왔던 풍경을 소리라는 관점에서 그 지역사회의 문화를 파악한다는 나름 새로운 개념이다. 또 광주의 소리명소를 발굴하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주변의 소리를 깨닫게 해 소리에 대한 관심과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주변 소리와의 관계를 의식하는 가운데 지역 고유의 소리가 들리는 소중한 환경을 보전·계승하려는 뜻도 담겨있다. /김대이 기자

담양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담양경찰서는 31일 “지난 29일 담양수북농협을 방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112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원은 이날 초 고령의 노모와 함께 농협을 방문해 고액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고객을 응대하던 중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피해자는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 후 추가로 3천500만원을 송금하던 3억원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송금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수근 담양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주매일신문, 무지개지역아동센터 NIE 3차 순회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31일 광주 남구 무지개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 만들기 실기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2차 순회교육 때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 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을

을 배웠다. 교육에 참여한 서현민(호남원예고 1)·서성민(서광중 3)·이성섭(금당중 1) 학생은 신문 만들기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한편,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 기자



순천경찰, 생활안전協 연합회 위촉식

순천경찰서는 지난 30일 경찰서 내 봉화마루에서 생활안전협의체 연합회 위촉식을 열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경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위촉식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협의체 활동을 재점화하고, 연합회를 대표할 새 임원진을 공식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임명된 임원들은 앞으로 경찰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안전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위촉식에서 경찰은 ▲괴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질서 위반 ▲쓰레기 투기·음주소란

등 생활질서 위반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민·경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순천경찰서는 생활안전협의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체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맞춤형 치안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대현 순천경찰서장은 “생활안전협의체는 주민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생활 치안의 동반자로 큰 역할을 해왔다”며 “경찰도 기초질서 확립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전남농기원, 중국 구이저우성과 茶 산업 협력 강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중국 구이저우성과 차(茶)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협력 및 국제교류에 본격 나섰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구이저우성농업과학원 설립 120주년 기념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아 양 기관 간 차 산업 분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이저우성은 중국을 대표하는 차 생산지로 특히 가루녹차(말차)의 주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전통 수공 제다(製茶) 기술과 현대화된 가공공정을 접목한 독자적인 기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고품질 녹차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김재정 기자

이승규 목포해경 경장, 트럭 화재 초기진화



무안 한 도로에서 불이 난 트럭을 발견, 초기진화하고 운전자를 대피시킨 해양경찰의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에 근무하는 이승규(34) 경장이다. 31일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이 경장은 지난 26일 정오께 주말을 맞아 본가로 이동하던 중 무안군 남악분기점 인근 도로에서 흰 연기를 내뿜으며 갓길에 세워진 트럭과 당황한 채 서성이는 60대 노부부를 목격했다. 이 경장은 곧바로 차량을 세운 후 본인 차량에 있던 소화기로 화재 차량의 불을 껐다. 또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불이 난 차량 주변에서 있던 노부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 경장은 119에 화재 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에 현장을 인계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자치경찰초

우수 청년 서포터즈 15명에 감사장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0일 ‘청년 서포터즈 112’ 제8기 우수 서포터즈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제8기 청년서포터즈는 올해 4~6월 약 3개월간 피싱 범죄 예방, 치안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경찰 활동, 디지털성범죄 예방, 노쇼 사기 방지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활동을 펼쳤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상반기에 활동한 120여명의 청년 서포터즈 중 지역 치안 강화와 광주자치경찰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서포터즈 15명을 선정했다. 특히 호남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청소년 도박 예방을 주제로 한 웹툰 콘텐츠를 제작 활용해 정보 전달력을 높이는 한편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했다. 안전 광주자치경찰위원회장은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재능을 적극 활용해 시민 중심의 치안행정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전남자치경찰초, 다문화 안전 협업 강화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0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다문화 안전 분야 실무협의회를 개최, 내외국인 모두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전남도 이민정책과와 사회재단과, 전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전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국어 안전정보 제공 앱 개발 전문업체 다온플레이스 등 7개 협력부서가 참여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안내문 배부·홍보,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시설 확충, 외국인 자살방범대 확대, 다국어 안전정보 플랫폼 개발, 다국어 교통안전 리플렛, 외국인 긴급재난 문자 서비스 확대 등 다문화 안전정책을 협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나주 등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국어 안전정보 제공 앱 개발 등 디지털 기반 치안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서원 기자